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세션 2

사무엘상 2장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과 하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Robert Chisholm입니다. 2회기 사무엘상 2장 12-36절입니다. 무례함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3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전반부에 이어 2장과 11절까지 우리가 한나와 11절을 살펴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에서 주요 주제가 주님께서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예배에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주님께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억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은 그녀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했으며 또한 그녀의 경험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일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책을 진행하면서 주님께서 한나에게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 사무엘은 이 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는 신명기에 예언된 대로 여러 면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이야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며 그들과 사무엘 사이에는 대조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특정 섹션에 무례함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Eli와 그의 아들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 부분의 주요 개념은 주님께서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을 반대하시며,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보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 한나의 정당성을 입증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분이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거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을 거쳐 3장과 4장을 거치면서 보게 될 것은 실제로 이러한 현저한 대조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초점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엘리의 아들들에게 맞춰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사무엘로 전환하고 실제로 한나는 이 시점에서 무대를 떠날 것이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읽을 것입니다.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 및 사무엘의 성장에 대해 살펴본 다음 다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무엘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지만 27절부터 36절까지의 초점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맞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서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대조되는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부르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책에서 중요한 인물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을 왕위에서 몰아낼 사람이자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저자가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사무엘이 주님의 선지자라는 신뢰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전체는 부분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독자들에게 사울이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이 선지자였음을 보여 주기 위해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왕.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은 부분적으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선택된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뒤에 세워야 합니다.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미래는 다윗과 그의 왕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모든 일에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님의 선지자로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말할 사람이고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새로운 왕이라고 말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입니다. 또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여호와께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글썄, 사무엘을 읽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엘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를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으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엘리를 멸시하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버리셨고 사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 사울 사이에는 일종의 문학적 연관성이 있고 한나, 사무엘, 다윗 사이에는 문학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개 의견을 옆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지휘 아래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중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야기의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주어가 먼저 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단락 구분과 새로운 에피소드 등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장 서두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는 중심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른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자는 수풀 주위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한나가 엘리에게 술고래라고 비난했을 때 우리가 언급한 b'lia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를 무가치하고 사악한 여자, b'lia의 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서술자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논평하고 있으며 쓸모없는 블리야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엘리는 늘 그렇듯 한나가 그런 사람인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아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분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립 서비스를 제공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실제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현재의 왕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맞서시며 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던 요시야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요시야는 여호와와 주권 아래 여호와와 왕으로서 자신의 임무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임을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있는 것이라 그는 주의 권세를 인정하고 율법이 말한 대로 순종하여 자기가 참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었느니라.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규례는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마다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냄비에 던지며 주전자나 가마솥이나 솥이 있으면 제사장은 갈고리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게 왜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쌍한 성직자들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글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에 관해 이야기하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냥 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동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얻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이 주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기름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 고기를 먹을 때 기름기가 싫다.

그러나 그것은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태워지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 분깃을 받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구워 먹을 고기를 주라 하더라.

그는 당신에게서 삶은 고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고기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워야 한다고 하면 주님의 몫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하인은 '아니요, 지금 내놓으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그들이 처음으로 고기가 생으로 왔을 때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은 주님께서 그의 몫을 받기도 전에 그것의 몫을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끓고 있을 때 그들은 세 갈래 포크를 가지고 다시 와서 더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자면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배불리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몫을 받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일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그들을 사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와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당신은 큰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우상 숭배와 간음에 사용되며 심지어 문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큰 추가의 유일한 장소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조금 많이 먹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에 명시된 특정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주님 앞에 아주 큰 죄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제물을 멸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스위치 중 하나를 연습합니다. 18절에서 사무엘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의 옷인 세마포 에봇을 입은 소년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작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자라면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매 학년마다 그들은 키가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게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남편과 함께 연례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작은 겹옷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에게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년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자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자녀를 주사 그가 기도하여 여호와께 드린 사람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집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미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은 이것을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Hannah는 더 많은 자녀를 낳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무엘 외에 세 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될 것입니다. 엘리는 한나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이 가진 두 아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동사 가돌 (크다)입니다. 그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어근이다. 그들의 죄는 게 돌아 왔습니다. 그것은 훌륭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볼 수 있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미묘함인데 번역가는 특정 문맥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가서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텍스트를 HD, 즉 컬러 HD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흑백이나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달리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전환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대조가 전개되었으며 본문은 이제 이 시점에서 엘리의 이름을 이동하고 언급합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막 입구에서 섬기는 여자와 동침하였습니다. 그 표현, 그 진술은 우리 본문의 모든 증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추가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왜 추가됐나요? 글쎄,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추가 설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주제적으로 본 것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음식을 원합니다. 그들은 여자와 자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곳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곳 회막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너희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 모든 백성으로부터 듣습니다. 아니오, 아들들아, 그것은 좋은 보고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좋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는 악한 행위를 말했지만 내가 여호와와 백성 가운데 퍼뜨리는 좋은 소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과 함께 추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중재해 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셔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리요? 당신이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누가 주님을 대적하는 당신의 변호인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매우 위태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여기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권위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 일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해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그들을 꾸짖는 것뿐이다.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4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들은 이성을 듣지 않는 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 이건 흥미롭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이는 것을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서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친구들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선을 넘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느니라.

나는 그들을 경기장 밖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엘리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주님이 너무 늦었다고 판단하시는 지점에 이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의 르호보암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새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북방 인력을 좀 압제하다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심히 학대하였으니 우리는 당신이 좀 더 공정하고 공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우리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당사자의 말을 듣습니다.

나이 많은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어린 친구들은 그에게 "아니요, 그냥 아버지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만 말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그는 굳어질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 넘겨주실 것입니다(로마서 1장).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는 아들들을 빨리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무실에서 해임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이 이성을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니요,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의 강박함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봅니다.

바로는 여러 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했고, 그가 그렇게 한 후에 주님은 그를 강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로 돌아간 소년은 다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 사무엘은 키가 계속 자라가며 주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브라는 단어는 그들의 호의와 그의 선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tovah 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하지 않지만, 사무엘은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은총을 얻었고, 그래서 다시 두 편 사이에 대조가 생겼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에게 사용된 표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 아버지의 집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바로의 치하에서 애굽에 있을 때에 집이 무엇이냐? 이 아비의 집은 아론이니 곧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너희 아비 아론을 택하여 내 제단에 올라갈 제사장을 삼았으니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사무엘서에서 에봇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제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야기에서 그것이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할 때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내가 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물을 네 아버지의 집에 주고 네 아버지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 나와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화제물을 모두 그들에게 주었다. 내가 내 처소를 위하여 규정한 나의 제사와 예물을 너희가 어찌하여 멸시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예물의 좋은 부분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함으로써 나보다 너희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느냐?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전 구절로 돌아가서 엘리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글썄, 그는 말을 하더군요. 그는 그의 아들들이 한 일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옳은 말을 하고, 기도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제가 그 반항적인 아들들을 공직에서 해임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백성에게서 빼앗은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먹었더라. 그래서 그는 그들이 하는 일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직위에서 해임하지 않았고 분명히 그 고기의 일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에 대해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희생과 예물을 멸시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당신의 아들을 더 존중하고 있으며 때로는 부모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서는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된 언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을 미워하고 나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 엘리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었거나 그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을 꾸짖었지만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고, 주님에 관한 한 그는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네 집과 네 아버지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 섬길 것이라 내가 약속하였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나니 주님은 본질적으로 그들이 나를 대하는 것과 같이 나도 사람을 대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경멸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갇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존경하면 나도 너희를 존경하리라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인데, 너희는 제사장직을 상실한 것이다.

내가 네 힘과 네 아버지 집의 힘을 꺾어 네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분명히 그들은 계속해서 사제직을 맡게 되겠지만, 그 가문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일찍 죽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내 집에서 고난을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복이 있을지라도 네 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문화에서는 노년을 신의 축복으로 여기며, 신의 축복의 표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계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내가 내 제단에서 끊어지지 아니한 너희는 모두 살아남아 눈물로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할 뿐일 것이며, 너희 자손은 모두 장년에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엘리가 이 모든 일을 함께 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늙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 주변에 없을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종종 이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조상과 후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8장에서 주님은 야곱에게 그의 자손이 어떻게 사방으로 퍼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약속하시고, 너는 동서남북으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글썄, 야곱은 주변에 없을 것이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엘리를 묘사하기 위해 그런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봤다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네 가계에 일어날 일이며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아에게 일어날 일이 네게 징조가 되리라 둘 다 같은 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비 신호가 있을 것이고 흠니와 피니어스는 같은 날 죽을 것이고 그것은 꽤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4장,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의 집을 견고히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항상 섬기리라.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사무엘인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의 첫 번째 성취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열왕기의 구절을 통해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발생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엘리의 후손을 강등시키고 사독이나 사독을 왕으로 높였습니다. 그것은 엘리의 계보와는 다른 아론 계보였으며, 따라서 그것은 꽤 오랜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엘리의 집은 강등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그 특별한 경우에 사독의 집이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집안의 남은 사람들이 모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은 한 조각과 빵 한 덩이를 요구할 것이며, 나를 제사장 직분에 임명하여 내가 먹을 것을 얻게 해 달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후손들은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요 제사장 계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노선이 될 것이고, 당신의 후손들이 실제로 와서 음식을 구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조금 가혹해 보이지만 얼마나 적절한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주 봅니다. 처벌은 범죄에 적합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가 시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취한 고기를 배불리 먹었으니 이는 마치 주님께서 너희가 내 고기를 배불리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으니라. 먹을 것이 거의 없어 음식을 구걸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암튼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사무엘의 더 넓은 맥락에서 그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영원히 그 직위를 약속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어떻게 그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그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서 빼앗길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조, 영원히 지속될 왕조를 주려고 했으나,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글썄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구약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을 다룰 때 그 약속이 모두 무조건적이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이런 성약과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2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취소할 수 없음을 확증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하나님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다른 두 가지 약속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민수기에서 비느아라는 이름의 제사장과 맺은 약속 중 하나입니다. 갈렙. 그래서 주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정말로 축복을 최대한 누리려면 일정한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다윗 언약의 사무엘하 7장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아들이 나에게 불성실하고 나에게 불순종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약속을 뺏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 왕조의 약속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그런 식으로 이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건부입니다. if가 거기에 있으면 분명히 조건부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다양한 구절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때로는 약속이 무조건적인 것처럼 언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조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암시적으로 조건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누그러뜨리실 이런 종류의 예를 봅니다.

그는 마음을 바꿀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의 백성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을 누우치고 행동 방향을 바꿉니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구절은 예레미야 18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이것이 정말로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경우, 주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루시며, 그들에게 그분께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8장 1절, 그리고 2절,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내 말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나는 도공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항아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의 직업입니다.

그는 점토로 물건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물레를 돌리는 것을 보았으나 그가 진흙으로 빚고 있던 항아리가 그의 손에서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은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종류의 항아리를 염두에 두었지만 점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연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상 됐어요 . 그래서 그는 그것을 버리는 대신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디자인의 다른 유형의 냄비로 만들어 자신에게 가장 잘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할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만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뽑고 훼멸하고 멸망시키리라 명하여 그 민족이 그 악을 뉘우치면 내가 뜻을 돌이켜 내가 계획한 재앙을 그 위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떤 나라에 심판을 선포할 때가 있으나 만일 내가 경고한 그 나라가 그 악을 뉘우치면 내가 뜻을 돌이켜 내가 계획한 재앙을 그 나라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이다. 즉, 주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은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를 바라시지만,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이 그들을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과 정확히 같으며, 요나서처럼 구약에서 여러 번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나타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걸로 무엇을 할 건가요? 그는 조건에 대한 징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40일이 기회의 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마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40일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까? 당신은 그것으로 양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니네베 왕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가 현명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했으므로 우리는 회개할 것이며 동물들도 회개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음식을 빼앗길 것이고 그들은 음식이 부족할 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mi yodea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뉘우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회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전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본문은 3장의 끝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일을 보셨으며 주님은 참으로 뜻을 돌이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요나는 이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니느웨 간척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그 일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요나가 왜 도망쳤는지 궁금하시다면, 두려워서라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니다. 그는 이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니다. 아시리아인들은 고대 근동 세계 전체에 걸쳐 사람들에게 꽤 불쾌한 일을 저질렀고, 800년대에는 이스라엘에도 꽤 불쾌한 일을 저질렀습니니다. 그래서 요나는 앗수르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니다.

그는 이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4장에서 그는 화를 냈습니니다. 그 사람 정말 짜증났어요. 그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런 종류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래 참으며 인내심을 갖고 일반적으로 자신이 위협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니다. 이것이 당신이 하는 일입니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여기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매우 속상했습니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명확하게 조건부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니다. 니네베 왕은 어느 쪽이든 확신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가 실제로 조건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니다.

사실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니 마음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무 늦었 어.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돌이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간단히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사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실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약속을 없애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불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것처럼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불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심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변함이 없습니다. 글썄, 그는 거기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성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의 본성이예요. 그러므로 그는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에게 발표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관계에서 누그러뜨릴 수 있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변성의 교리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 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성실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법령을 내뱉는 하늘의 컴퓨터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그는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경고할 것입니다. 9절, 만일 내가 후일에 민족이나 나라를 세웠고 심으려 하여도 내 목전에 악을 행하고 내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복을 베풀기로 뜻한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 다른 방식으로도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 이에 대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오늘부터 항상 그의 백성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글쎄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요엘 이후에도 자신의 백성을 여러 번 심판하셔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조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재난을 준비하고 너를 칠 계획을 세우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개혁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소용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획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은 메시지를 거부했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를 원하였느냐? 헬라어로, 친구야,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는 어미 암탉처럼 그녀의 병아리, 하지만 당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동료, 같은 동사, 당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상적인 뜻, 그분의 앞선 뜻, 그분의 앞선 뜻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며, 이 악이 계속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과적인 뜻인 계획 B는 이상적인 뜻보다는 덜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났고, 이스라엘에게도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

그는 엘리와 사울에게 약속을 했고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그 약속을 취소하고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나 그의 백성에 대한 헌신을 실제로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상실합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냉정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은 3장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그의 선지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즉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주님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무엘을 새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고,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우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몰락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하루 만에 죽을 것이라는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와 그의 아들들 사이의 대조는 다음 두 장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다음 과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하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Robert Chisholm입니다. 2회기 사무엘상 2장 12-36절입니다. 무례함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